

개신교회 광주서 또 대면 예배... 시민들 “지긋지긋하다”

광산구서 40여명 불 끄고 모여 온라인 촬영 핑계 예배당 남기도 시민들 “단속강화 최우선” 목소리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해가며 대면 예배를 강행한 광주의 개신교회가 또 적발됐다. 일부 교인은 적발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 촬영 등을 핑계로 예배당에 남아 있는 행태를 보였다.

7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한 개신교회가 지난 5일 오후 8시에 교인 40여 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했다. 당국은 불 꺼진 교회 건물에 사람이 모여 든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교인 다수는 현장 적발 뒤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해산했다.

그러나 일부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 촬영 인원 등 20명까지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지침을 큰

거로 예배당에 남았다. 정부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 방송제작을 위해서만 (기술)인력에 한해 20인 미만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교회에선 이를 악용해 20인 미만이 대면 예배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교회의 방역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시민 신고에만 의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광주시 등 방역당국은 이 같은 일부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가장한 대면예배 행위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단속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실상 단속에 두 손을 놓고 있다. 이 같은 어설픈 방역행정으로 교회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1년 넘게 일상생활 제한, 영업 금지 또는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게 광주시민들의 하소연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는 10일까지 광주 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시민 김형민(46·광주시 북구)씨는 “교회 집단 감염 때문에 결국 설 명절에 부모님 댁도 못가게 됐다. 그런데도 또 방역 지침을 어기는 교회가 나오고 있다”며 “아마저도 시민이 신고해야만 적발되는 수준이다. 제발 단속 좀 강화해서 교회발 감염 좀 막아달라. 그게 광주시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 당국은 일단 해당 교회 관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해당 교회는 지난해 12월에도 방역 지침을 위반한 대면 예배로 고발된 곳이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시내 교회 173곳을 점검해 14차례 경고 조치하고 4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회들은 대면 예배·교인 간 소모임·식사를 하거나 출입자 명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표 기자 lucky@

‘5·18 민주화운동 헌신’ 강신석 목사 별세

문대통령 국민훈장 ‘모란장’ 추서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데 헌신했던 ‘민주화운동의 거목’ 강신석(사진) 목사가 지난 5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관련기사 20편〉

고인은 1938년 8월 24일 광주에서 아버지 강주원 목사와 어머니 명성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광주대성초등, 광주서중을 거쳐 광주대에 진학했으며 이후 한신대와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강 목사는 부친인 강주원 목사 뒤를 이어 목회자의 길을 걸었으며 아들 강지훈 목사도 목회활동을 하는 등 3대가 목사 집안이다.

고인의 삶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요약된다. 1976년 유신반대 성명서 낭독을 주도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1년여 수감 뒤 특별사면 됐다. 이후 80년 광주민주화운동, 5·18

별명 제정 투쟁 등에 앞장섰다. 특히 김영삼 정권 시절 5·18특별법 제정 100만명 서명 운동은 한국 역사상 첫 100만명 서명을 받아낸 민주화운동의 이정표로 평가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강 목사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강 목사의 장례는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유족으로 3남이 있으며 빈소는 조선대 장례식장이다. 고인의 유해는 8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치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올 겨울 살처분 닭·오리 350만수... 영암 오리농장서 AI 확진

발생농장 10km 이내 34곳 정밀검사

영암군 시종면 중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올겨울 들어 도내 16번째 가금농장 확진 사례로, 발생 농장 살처분과 반경 3km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까지 모두 350만수의 가금이 살처분됐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업축산검역본부의 지난 6일 영암군 시종면 모 중오리농장에서 채취한 검체를 정밀검사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내렸다. 전남도는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4일 진행한 상시 예방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자, 관련 지침에 따라 발생 농장에서 사육하던 중오리 9000수를 살처분하는 한편 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에 따라 전남도는 3km 반경에 있는 가금농가 4곳의 닭과 오리 50만1000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갔다. 농장 내 종사자와 가족에 대한 이동 제한 및 출입자 통제 조치도 취했다. 발생 농장 인근에는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차량과 인원 통제에도 돌입했다. 또한, 발생 농장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1개월간 가금농가 이동을 제한했다. 가축 방역당국은 이어 발생농장 10km 이내 34개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에 착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 고병원성 AI 확진 농장 주변에서 바이러스 매개체인 철새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설 연휴 사람 이동 증가에



지난달 26일 함평 육용오리농장에서 방역 당국이 살처분 준비를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따른 감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가금농장에서는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종면 중오리농장 확진으로 도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16개 농장으로 늘어났다. 산란계 농장 2곳(모두 무안), 오리농장 14곳이다. 오리농장 확진의 경우 영암 5곳, 나주·구례 각 2곳, 곡성·보성·무안·함평·장성 각각 1곳씩이다.

7일 현재 올겨울 들어 살처분 가금 수는 348만수를 넘어섰다. 오리농장 59농가와 양계농장 246농가에서 각각 101만2000수, 닭 246농가 246만

8000수를 살처분했다. 발생농장 16농가에서 살처분된 가금 40만8700수를 제외한 나머지 289농가 225만여수는 모두 발생농장 반경 3km에 든다는 이유로 정부 가축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된 가금이다.

지난 12월 영암 시종 육용오리 농장에서 첫 확진 이래 매주 가금농장 2개꼴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에서는 지난 2일 기준 85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선정... 국비 99억 확보

광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2021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돼 국비 99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후 3~7년차 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

하는 등 창업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105개 기업에 122억원을 지원해 316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의 문화콘텐츠기업의 창

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향후 2년간 시비 4억원을 포함한 총 103억원을 투입해 지역 문화콘텐츠 창업기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사업 주관기관인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3월 창업기업을 모집과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자세한 정보는 향후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와 창업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코로나 생활고’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내일부터 기초생활·차상위 3만여 가구에 20만원씩 입금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핀셋’ 지원한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로 취약계층이 겪는 상대적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각종 생계급여 지원 가구를 제외 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생활지원금은 시민안전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된 광주시의 제12차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지급대상은 제12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지난 2일부터 지원금 지급 시까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법정차상위 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3만여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정부긴급복지·광주형긴급복지(노랑호루라기)·광주형기초보장제도 등 생계비 지원 가구는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금은 가구당 20만원씩 별도 신청절차 없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에 바로 계좌 입금한다.

광주시는 당초 지역 내 소비촉진 등을 위해 광주상생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비 지출 등 지원금이 소비로 바로 연결되는 점을 고려해 계좌입금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했다.

광주시는 대상자 계좌를 파악해 가급적 설 전인 9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설 명절 전까지 지급이 어려운 일부 동 행정복

지센터에서는 지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저소득층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광주형 가계긴급생계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 긴급복지지원과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광주형 긴급복지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춰 코로나19 등으로 급격한 소득 감소를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진행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투자 하실분 3억 이상

경매 낙찰된 특수물건
급매 / 부도직전 물건
경기 / 수도권 물건
수익률 좋음

(주)오천.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농성동 남양휴튼

농성동 시세차익 마지막아파트 (전세대 구.33평, 총 419세대)

청약통장 필요없음 전매제한 없음

지하철 더블역세권 숲 세권 원스톱학군

- 안방, 거실시스템 에어컨 무상
- 중문 무상
- 발코니 확장비 무상

※ 코로나19로 홍보관은 방문예약제로 운영되오니 꼭 미리 연락주세요!

1800-1548

공고문

여수시 평여동 560-3번지

위 땅은 개인 사유지므로 무단출입 및 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사용을 해야 하니 무단 침입되어있는 나무는 2021년 3월 31일까지 모두 옮기셔야 원상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31일까지 원상 복구되지 않을 시 나무는 임의로 처분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은 물론 토지 임차료 부과 등 법에 의하여 처리하겠으며,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피해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2021년 2월 8일
TEL. 010-4904-2334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20. 12. 01. 자 임시조합원총회에서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1. 02. 08.

온우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온천길 42
청산인 김정욱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업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고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분묘위치: 해남군 삼산면 상가리 422-4
- 분묘가수: 1기
-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 개장방법: 예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 연차원소: 남도평역추모위원회 (해남군 삼산면 원호리 산 163)
- 연차원소: 개장 후 안치묘로써 10년
-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 신고 처: 조규설 (해남읍 남부순환로 37 센트럴빌딩 1606호)
- 신고시 구비서류: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해당된 분묘주와의 관계 증명서(복부,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생묘가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2월 8일
공고인: 조규설 (010-3682-0203)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백만수(711027-XXXXXX)
· 최후주소: 여수시 버드나무길 30-3 (봉강동)
· 피상속인 망 백만수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정법원 승천지원 2021년단16호로 신청하여 2021년 1월 2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승수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지 않거나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2월 8일

· 상속인: 백문석(761113-XXXXXX)
· 신고기간: 2021. 2. 8. ~ 2021. 4. 19.
· 채권신고처: 상속인 백문석의 주소

산행안내

2월 21일(일)
▲광주Kj산악회 2월 21일(일) 경북 군위면, 아미산&방가

산 산행, 영주체육관 06:30, 동아병원 옆 06:35, 롯데백화점 06:40, 광주역 06:45, 문예후문 06:55, 비엔누차장 07:0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